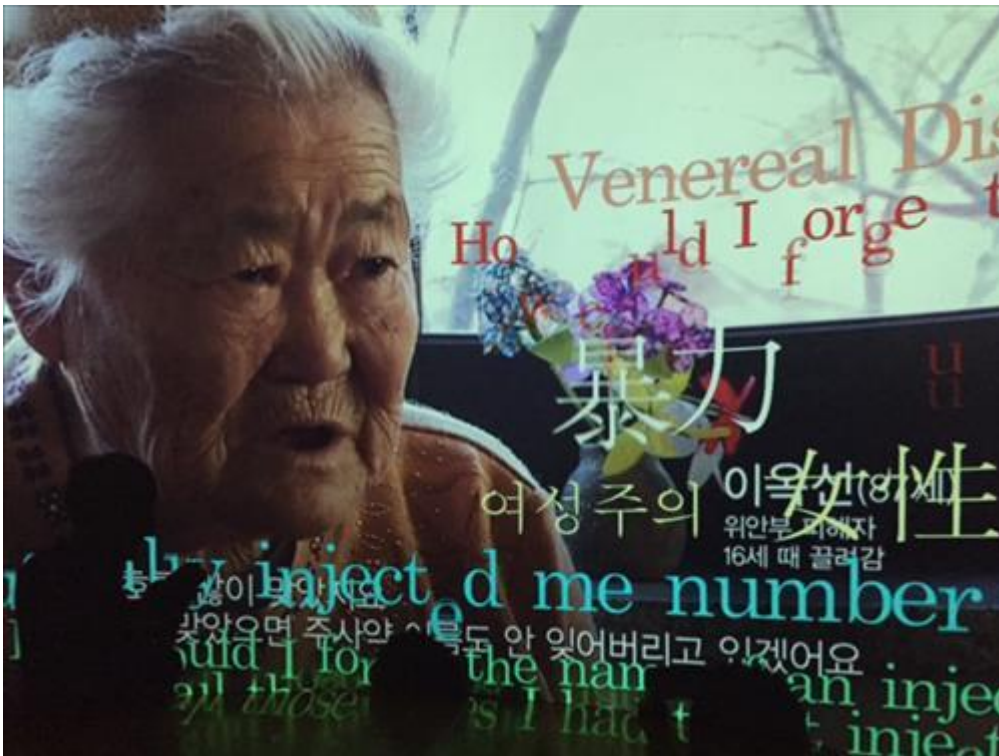


## 동아시아 여성미술의 독창성과 다양성 함께 본다

2015/09/15 17:28 김정선 기자

동아시아 국가 여성미술의 다양한 모습과 독창성을 함께 보여주는 전시가 15일 서소문 본관 2~3층에서 시작됐다.

'동아시아 페미니즘: 판타시아'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선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7개국 작가 14명의 작품 50여점을 소개한다.



강애란, Re-Voice

제목의 '판타시아'는 '판타지'(fantasy)와 '아시아'(Asia)의 합성어다.

페미니즘을 화두로 삼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립미술관은 "요즘 전세계적으로 여성 혐오가 확산하는 가운데 그간 고개를 숙였던 페미니즘이 사회 분야에서 재고되고 있다"며 "1970년대가 여성주권을 높이자는 운동이었다면 현재는 가부장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내포하는 젠더 문제 등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페미니즘 시각에서 동아시아 여성미술의 현재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

다.

강애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주제로 한 신작을 선보였다.

피해 할머니의 증언과 다큐멘터리 영상, 사운드 등을 한 곳에 모은 영상설치작품이다.

강애란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이 공감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비정형적 실로 엮은 현장 설치작업으로 잘 알려진 일본 작가 치하루 시오타는 이번에는 검은색 실로 백색의 드레스를 거미줄처럼 감싼 작품을 보여준다.

10명이 동원돼 100시간을 들여 완성된 작품으로, 작가는 여성의 부재와 억압을 이야기한다고 미술관은 전했다.



치하루 시오타, 애프터 더 드림

중국 작가 인 시우전은 재활용 의상이나 버려진 천, 비행기 바퀴 등을 활용한 작품을 소개한다.

그는 중국이 "과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여성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시골에선 아직 반(反)여성적 성향이 심하다"고 말했다.

참여작가 중 유일한 남성인 싱가포르 출신 밍 웡은 여장을 한 채 아름다움의 의미를 물은 사진과 영상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이 작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도 "싱가포르에도 부계적 상황이 존재하지만, 한국보다는 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작가 멜라티 수료다모는 솥을 이용해 생명의 순환성을 보여준다.



멜라티 수료다모, 나는 내 집의 유령

한국 작가로는 정금형, 정은영, 장파, 함경아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 중 7명은 연말 중국 광둥미술관에서 열리는 제1회 아시아 비엔날레에 참여할 예정으로, 서울 시립미술관 전시로 해외 소개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술관은 덧붙였다.

전시는 11월8일까지다. 문의 ☎ 02-2124-8868.

---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5/0200000000AKR20150915191100005.HTML?input=1195m>